

# 외국의 환경보호 실천 사례

구 자 건

## 스물 한번째 맞는 「세계환경의 날」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여 민간환경운동단체가 주관한 「남산 꺼안기운동」과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이제 환경문제는 전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들어서는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실천’의 문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세계각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선 중남미로 떠나보자.

## 브라질의 〈녹색희망〉, 쿠리티바시(市)

「리우회담」이 열렸던 리우데자네이루의 남쪽 30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인구 2백만의 쿠리티바시.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대기오염과 소음,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브라질의 어느 도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도시가 이렇듯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쿠리티바시의 시장인 ‘재미 러너’의 환경개혁 시정(市政)의 성공 결과이기 때문이다. 올해 58세인 재미 러너시장, 그는 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도시문제 전문가와 교통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야심적인 환경정화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매연을 내뿜는 버스와 버스노선을 과감히 정비했다. 그리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의 필수조건이 빈민층의 생활수준향상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그는, 쓰레기 분리사업에 빈민층을 고용해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한편, 각급 학급별로 쓰레기 재활용운동과 화초가꾸기운동을 적극 권장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활용품과 재배된 화초는 쿠리티바시가 우선적으로 구입해줌으로써 참여한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워 주었다. 이를 통

해 단합된 시민의식을 끌어낸 것이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쿠리티바시는 브라질의 〈녹색희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6개의 공원이 있으며, 도심의 하늘은 그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편이다.

러너 시장은 현재 쿠리티바시 변두리의 작은 목재가옥에 살고 있을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만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러너 시장의 말을 우리는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성공한 〈맨발의 영농법〉

도미니카공화국을 세계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중미, 쿠바 아래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리오 림피오(Rio Limpio)’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던 ‘레수스 벤투라’는 ‘맨발의 영농가’로 알려진대로 무공해 영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이를 전국에 보급시키는데 성공한 농민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보급시키려다 실패한 이 무공해 영농법이 벤투라에 의해 성공적으로 보급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십여년 전부터 CREAR(스페인어로 ‘창조하다’는 뜻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벤투라와 그의 동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영농법을 ‘리오 림피오’ 근처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영농법이 기계식 영농에 비해 토양침식을 적게 일으키고,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많다는 사실이 차츰 이웃 농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실을 안 그 지역의 평화봉사단원

과 농민들이 차츰 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벤투라가 시도한 영농법은 우리나라 일부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유기농법과 같은 것으로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력과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차츰 수확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이었다.

〈맨발의 영농법〉이라는 영농방식이 말해주듯 그 지역 토양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한 덕분에 벤투라는 기대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수확을 직접 목격한 농민들은 서둘러 이 영농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산호세’시에서만 3천가구 이상이 이 영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호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념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실증해준 셈이었다.

**컴퓨터에도 ‘환경마크’ 부착 예정인 미국**

화제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컴퓨터’와 ‘환경보호’. 얼핏 생각하기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환경보호청(USEPA)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환경보호청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 보급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약 3천5백만대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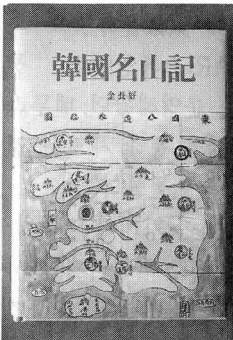
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력소비량은 미국내 상업전력소비량의 5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2000년에 이르러 이 비율은 현재의 두배인 10퍼센트로 증가하리라는 것이 미국환경보호청의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 바로 ‘에너지 스타 컴퓨터(Energy Star Computer)’란 제도이다. 즉 전력사용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컴퓨터 제품에 대해 특별상표를 부착시켜 주고, 광고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야흐로 컴퓨터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환경보호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그린 컴퓨터’가 등장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각분야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시민들도 집안에서부터 시작하는 환경보호운동을 집밖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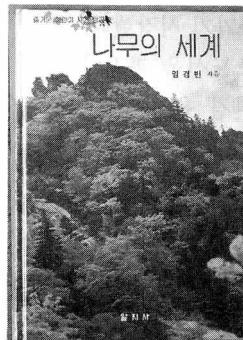
[필자: 공해평론가·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선임연구원·본회 회원]

**新刊案内**



◀ **韓國名山記**

동국대 국문과 교수이자 산악인인 김장호박사(64)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전국 61곳 명산에 얽힌 지리·역사·문화를 소개한 “韓國名山記”를 출간했다. 산 하나에 대한 글을 완성하는데 1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같은 산이라도 몇차례 되풀이해서 등반했기 때문에 10여년간의 집필끝에 빛을 보게된 산의 역사기행서이다. <평화출판사刊>



◀ **나무의 세계**

일명 ‘나무박사’임경빈 교수(원광대)는 어린이들의 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연탐구교재인 「나무의 세계」를 펴냈다.

4·6배판 45쪽 분량의 이 책은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점, 용문사 은행나무등에 얽힌 이야기, 산림대에 따른 나무의 종류, 올바른 식수법등 나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칼라사진과 함께 재미있고 알차게 설명하였다. <일지사刊>